정재서

오리엔탈리즘과 중화주의 벗은 '맛깔스런' 동양 신화

《정재서 교수의 이야기 동양 신화 _ 중국편》 낸 중문학자 정재서

상상력은 자유롭다? 문장 뒤의 물음표는 정재서(52) 교수가 찍은 것이다. 신화 속의 많은 신들이 영상·출판매체로 귀환중인 오늘, 눈을 지릅뜨고 둘러봐도 우리네 신화는 없다. '상상예찬' 이란 말이 심심찮게 들리지만, 신화에 관한 한 우리는 상상력을 지배당하고 있다. 정 교수가 힘주어 물음표를 찍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상력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신화가 주목받는 시대라 하지만 서양의 신화와 주술담만 넘쳐날 뿐, 동양적인 상상력은 적막하기 그지없어요. 저항 없이 문화를 흡수하는 것, 염려해야 할 일이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동양신화 캐릭터 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전쟁의 신 '치우' 를 작업한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대부분 서양무사의 꼴을 하고 있더군요. 신화에 관한 우리의 상상력이 서양화된 것을 증명하는 사례죠. 이야기 동양신화를 쓰게 된 것은 편식된 상상력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상상력을 지배당하면 문화를 지배당하기 마련인데, 이번 작업은 문화적 저항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정재서 교수의 이야기 동양 신화_중국편》이 나온 배경이다. '동양신화' 라는 컨셉트를 명기하고 있지만, 책은 동양신화 소개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정 교수가 수고롭게 밝힌 동양신화 곁에는 어김없이 서양신화가 자리한다. 물론 주主는 동양신화고, 객客은 서양신화다. 정 교수가 둘의 대비를 통해 내보이고자 한 것은, 서양신화와 비교해 모자람 없는 동양신화의 매력이요, 대차대조를 통한 우열없는 신화 세계의 원형, 곧 제로베이스의 모습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신화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신화학자 부르스 링컨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주변문화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서양 중심의 사고를 부추긴다고 비판한 바 있지요. 오리엔탈리즘과 함께 중화주의도 극복해 보고자 했습니다. '중국편'이라 한 것은 분류상의 항목일 뿐, 동양신화 주체의 의미를 갖고 쓴 것은 아닙니다. 신화시대에 국민국가 개념이 어디 있었나요? 자기 영토에서 일어나면 자기 것이라는 중국 사람들의 패권주의 시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고구려 벽화를 통해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상관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자행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진실을 가려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의미를 더한다면, 이번 책은 '정재서 교수의 이야기 신화'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천지창조 이전 혼돈으로부터 시작하는 책은, 만물을 만든 여신, 천상과 지상을 지배한 신, 전쟁과 모험의 신들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눈도 입도 없는 혼돈의 신 '제강', 1만8,000년 동안의 잠에서 깨어나 천지를 개벽시킨 거인 '반고', 흙을 빚어 인간과 만물을 만든 창조의 신 '여와', 인류에게 농업을 가르쳐 준 '염제' 등 동양신화의 기괴하고도 별쭝스런 신들을 만나는 즐거움은 여간 아니다.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서양신화가 거대서사를 갖춘 것과 달리, 동양 신화는 단편적인 서사에 그친다 싶어, '동양신화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는가', 정 교수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리스 로마보다 많은 종족이 광대한 영역에서 다양한 신화를 갖고 경쟁한 것이 동양이라는 세계입니다. 한 종족이 쇠퇴하면 지배 종족의 신화가 중심이 되었지요. 동양신화가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세련미는 서양의 서사시인들이 일찍이 그것을 윤색했기 때문이죠. 신화라기보다는 문학작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동양신화가 갖는 원시적인 원형성은 서양신화에 앞서는 장점이랄 수 있습니다. 가공되고 윤색되지 않은, 인류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도 신화란 읽히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이번 책에서 동양신화의 이야기성을 많이 부여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문헌을 오가며 많은 부분 신화의 서사적 관계도 이어 보았지요."

단언컨대, 정 교수의 솜씨가 모자란다는 의미는 없었다. 책이 갖는 미덕 중의 하나는 단연 정 교수의 맛깔스런 입심이다. 신화의 중심을 파고들어 현재적 의미를 밝히는 학자적 해석은 진중하며, 주변을 툭툭 건드리는 그만의 위트는 별난 데가 있다. 태초의 시작인 '혼돈'을 언급한 대목을 보자. "미스터 혼돈, 그대는 아직 건재한가? 이제 우리와 함께 태초의 그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어떠한가?", "눈, 귀, 코, 입이 하나도 없는 달걀귀신 같은 얼굴에다 코끼리 사촌 같은 몸매를 하고 웬 춤? 게다가 노래까지. 정말 우습지 않은가?" 물론, 유쾌하고도 남음이 있다.

한편 우리 문화의 기원을 확인하는 일은 동양신화 읽기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서울 서쪽에 서대문형무소를 지은 이유는 죽음과 형벌을 주관했던 서방의 여신 서왕모 때문이며, 제사상에 복숭아를 놓지 않는 이유는 동이계 종족의 영웅인 '예'가 제자인 '봉몽'에게 복숭아 몽둥이로 맞아죽었기 때문이란다. 책은 이외에도 '골로 간다'는 말의 기원, 무녕왕릉에 나타난 저승신의 정체, 남원 오작교의 기원,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도깨비 그림의 정체 등 수수께끼 같은 우리 문화의 기원을 속속들이 밝혀놓는다.

"신화는 마음의 원형이자 문화의 원천입니다. 어느 시대에도 신화는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나타납니다. 기계문명 속에서 자연을 멀리하며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화입니다. 길을 잃으면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본래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 위안받을 수 있는 자리이지요."

상상력은 자유롭다! 문장 뒤의 느낌표는 기자가 찍는다. 오리엔탈리즘과 중화주의를 보기 좋게 뛰어넘어 신화의 세계를 원점에서 다시 더듬어보는 《정재서 교수의 이야기 동양 신화_중국편》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 한, 상상력은 더없는 자유로움을 허락받는다. 동양신화 상상력의 배가를 위해 중국과 일본, 대만을 오가며 1,000여 점에 가까운 도판을 준비한 정 교수의 고단한 발품을 생각하면, 기자는 문장 뒤의 느낌표를 힘주어 찍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 동양신화 2권이 8월이면 나옵니다. 2권 역시 중국편인데, 동양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과 동물들을 통해 상상력의 극치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책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자료 또한 풍부합니다. 중국편 작업이 끝났으니 이제 한국과 일본 신화를 부지런히 찾아야죠. 동양신화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 당분간의 제 목표입니다."

정 교수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조금쯤 자극적인 커피라면 동양 신화는 담담하고 은근한 녹차"라는 비유를 들었다. 마실수록 빠져드는 것이 녹차의 매력이라 했는데, 인터뷰를 끝낸 정 교수 앞에는 녹차 잎을 섞어 만든 '마차' 한 잔이 깔끔히 비어 있었다.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정재서 교수의 이야기 동양 신화_중국편》
정재서 지음 | 황금부엉이 | 360쪽 | 값 12,800원